2025-10-22

Economy Brief

금 및 은 가격 동반 급락과 유동성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금 가격 조정 배경: 단기 차익 실현, 연방 정부 폐쇄 장기화, 인도 축제 및 달러 강세

유동성 랠리 위축을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부 급등한 자산을 중심으로 한 차익실현이 나타나고 있음은 일단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과 AI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자사이클 등이 여전히 유동성 랠리를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함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금과 은 가격 동반 급락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이던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었다. 21일 금 가격은 온스당 4,115로 전일 대비 5.5% 하락했다. 일간 금 하락폭은 팬데믹 기간이던 2020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은 가격도 동반 급락했다. 21일 은 가격은 전일대비 약 7.6% 급락했다.

금 및 은 가격 하락 배경으로는 일단 단기 차익실현 욕구가 지적되고 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은 약 60%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 중이었다. 여기에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통계지표 발표 지연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 확대 및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최대 힌두교 축제 '디왈리'를 맞아 휴장한 것도 이날 유동성 부족에 따른 하락 요인을 제공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연합인포맥스 10월 22일 기사 참조) 이밖에도 엔화 약세폭 확대에 따른 달러 강세 역시 금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금 및 은 가격 급락에도 금과 은에 대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 다양한 불확실성 리스크,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투자전략으로 지칭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중앙은행의 금 수요 확대 등이 장기 금 가격 랠리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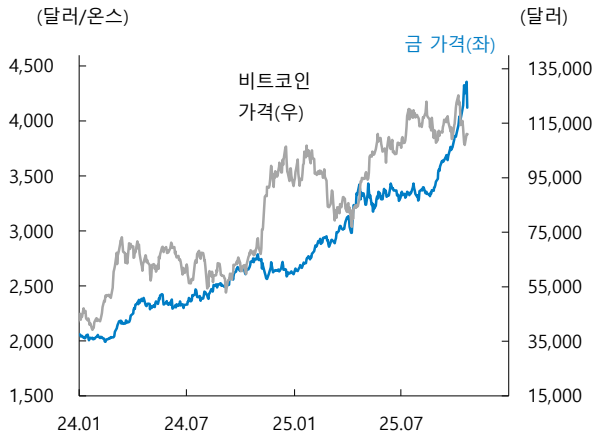
비트코인에 이은 금 가격 조정이 유동성 랠리 약화 시그널일지는 경계할 필요가 있음

그 동안 글로벌 자산가격은 에브리씽 랠리로 표현될 정도로 강력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자산가격의 동반 랠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이후 금 및 은 가격마저도 조정을 받는 모양새이다. 물론 금과 은 가격의 추가 조정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 지방은행들의 부실 리스크로 신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동성 경색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당사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및 양적긴축 중단과 이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유동성 흐름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일부 자산가격의 고평가 부담 속에 자동차 대출 및 사모대출 부실 리스크가 예상과 달리 증폭될 경우에는 유동성 랠리가 훼손될 수 있다.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부실 대출을 바퀴벌레에 비교하며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실제로는) 아마도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데 이어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투명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고수익을 기대한 투자자금이 사모대출을 통해 저신용 기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모대출이 향후 신용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요약하면 아직 유동성 랠리 위축을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부 급등한 자산을 중심으로 한 차익실현이 나타나고 있음은 일단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과 AI 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자사이클 등이 여전히 유동성 랠리를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1. 비트코인 가격에 이어 금 가격도 조정을 받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올해 주요 자산가격 등락률(10월 2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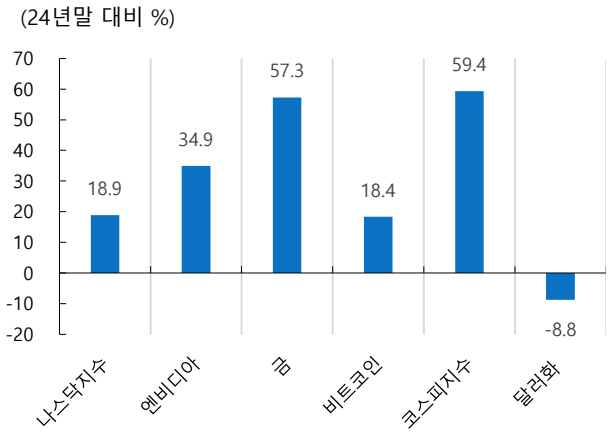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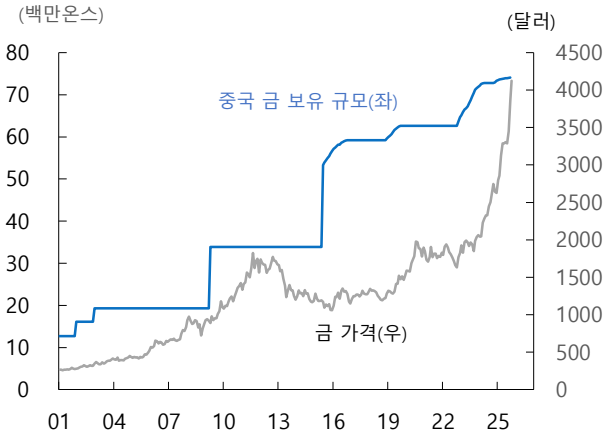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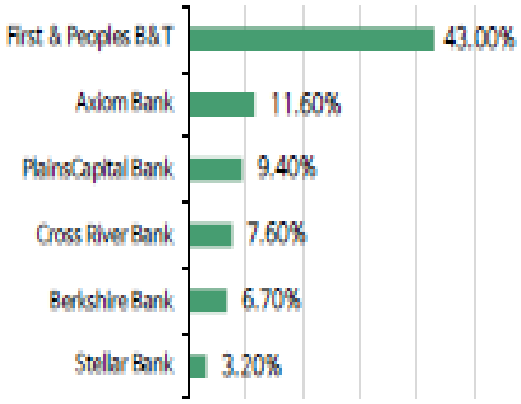


그림3. 중국 금 보유량 지속적으로 증가 중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미국 중소은행 비예금 금융기관(NBFI) 대출 연체율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